

## ● 이 달의 공감멘토



## 미술자료 수집에 건 45년 인생

# 김달진

## 미술자료박물관장

예술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직접 창작하는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작품을 감상하거나 소장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도 있다. 그런데 평생 미술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 잡지에 실린 르누아르의 그림 하나도 소중히 오래 간직했던 까까머리 중학생은 그렇게 45년 외길을 걸어 지금 국내 유일, 최고의 미술자료박물관장이 되었다.

취재 여문주 | 사진 전희찬

1952년 서울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백이의(白耳義) 현대미술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참전국 중 하나였던 벨기에(한자로 '백이의'로 표기)의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서울에서 열린 것이다. 부산으로 피란 간 국립박물관의 부산진열관에서는 휴전협정 2개월 전인 1953년 5월 '제1회 현대미술작가전'이 열렸다. 전쟁통에도 예술이 숨통 끊기지 않고 살아 있었고 전시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6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킨 것은 빛바랜 팸플릿과 낡은 포스터 한 장이었다. 서울 종로구 홍지동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2015년 기획전시로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 전 시공간의 역사'(10월 24일까지)에 전시된 기록물들은 이렇듯 하나하나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시에 대한 개괄로 이야기를 시작한 김달진 관장은 이를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근현대 미술이 지나온 길을 새롭게 되짚어 보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모두 남아 있는 자료 덕분이죠. 작가의 도록이나 판람 티켓 하나도 역사의 자료이고 아카이브의 근거를 이룹니다. 문화선진국, 문화역량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록들입니다.”

김달진 관장은 처음 미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45년 동안 줄곧 미술자료 수집에 매진해 왔다. 2008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개관되면서 관장이 대표 직함이 되었지만 그 밖에도 그를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이다. 소장(김달진미술연구소), 사장(월간 서울아트가이드), 회장(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등등. 그의 이름은 중학교 도덕교과서(금성출판사)에도 나오는데 <직업 속 가치 탐구> 코너에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다-김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미술 분야의 아키비스트로 소개되었다. 아키

비스트는 보존기록인 아카이브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미술잡지 기자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가나미술문화연구소 자료실장 등을 거쳐 독립, 2001년 사재를 털어 평창동에 미술연구소를 마련한 이래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호칭과 작업들이지만 이 모든 것은 미술자료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미술자료에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던 오래전,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릴 땐 남들처럼 우표 같은 것을 수집했어요. 미술자료라고 해야 여원 같은 잡지에 컬러 화보로 나온 명화를 오려 모으는 정도였죠. 고향인 충북 옥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미술책을 사러 청계천의 헌책방을 다니기도 했고요. 그러다 1972년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현대미술 60년전>을 보았는데 인쇄물로만 접했던 작품들을 실물로 보니 그 감동과 환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었지만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근현대미술 자료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커다란 사건이었지요.”

취미로 시작한 일은 운명처럼 그의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잡지사엔 무작정 연락해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당돌한 이십 대 청년의 눈빛을 예상하지 않게 본 <월간 전시계> 사장님이나 직접 만든 스크랩북 10권 분량의 서양미술사를 들고 찾아온 고등학생을 기억한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장님, 화랑 부설 연구소를 만들면서 그를 자료실장으로 발탁한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님 그리고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후원회를 이끌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박래경 한국큐레이터협회 명예회장님 등 인생의 주요 길목마다 소중한 인연들이 이끌어준 덕분에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때 ‘금요일의 사나이’로 불렸다. 매주 금요일이면 커다란 가방을 메고 인사동·사간동 일대를 돌며 전시 도록을 챙기는 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



게 발품 팔아 직접 모은 자료들이 아카이브가 되고 지금과 같은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는 그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1등만 기억할 게 아니라 동시대에 살았던 덜 유명했던 작가들도 기억해야 한다는 신념이 어느 자료 하나 허투루 버릴 수 없게 만들었고 그렇게 쌓인 자료가 기록으로서 힘을 갖게 되면서 미술사의 중요한 자산이 된 것이다.

표절 문제나 엉터리 통계, 주례사 비평 등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미술계에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다 보니 그의 발언은 큰 반향을 불러왔고 뉴스메이커라는 또 하나의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1985년 <선 미술>에 '관람객은 속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작가의 학력, 전시 경력, 연보 등 기록의 오류를 조목조목 밝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자료의 지층이 쌓여갈수록 또 다른 벽이 그를 가로막았는데 바로 공간 문제였다. 어렵잡아 25톤에 이르는 자료들을 개인의 힘으로 보관하고 활용하고 사람들과 나누기엔 너무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방바닥을 차지한 자료 박스들 위에 매트리스를 놓고 아이들을 재워야 했던 일이나 1층 사는 주인이 마루 무너진다고 눈치 주던 일은 추억 삼아 웃으며 떠올릴 수 있지만, 정부의 임대료 지원을 받아 홍대 앞에 이전 개관한 박물관이 4년 후 지원사업의 종료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2014년의 상황은 그에게도 큰 시련이었다. 국가의 유산이자 공공 기록물인 미술 아카이브지만 당장 주먹을 받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니 속 시원한 지원이 있을 리 만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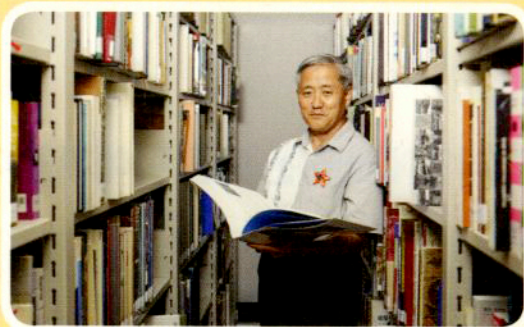
그러나 그는 다시 고집스레 이 위기를 돌파해냈다. 가지고 있던 자료 중 2만 점을 엄선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기증하는 한편, 인왕산 자락의 홍지동에 사옥을 마련해 올해 3월 이사를 단행했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단독 건물을 리모델링했는데 건축가 김원 광장건축환경연구소장의 재능 기부로 작지만 단단하고 짜임새 있는 새 동지가 마련될 수 있었다. 박물관의 존재 위기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각계의 많은 사람들이 진심 어린 축하와 지원을 보내왔다.

이곳에서 그는 지금까지 해온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연구소가 운영하는 달진닷컴과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통한 미술정보 제공, 연 4회의 기획전과 작가별 아카이브 구축 등 미술역사 기록, 그리고 기록 보전과 나눔의 단초가 될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등이 진행 중이다.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 30년 전 그의 글 ‘관람객은 속고 있다’의 마지막에 쓰인 이 문구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가 붙들고 지켜온 신념이자 자신과의 약속인지도 모르겠다. 

## Mentor's Letter

### 김달진 관장이 제대군인에게 전하는 메시지



인생의 길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며 그 길에는 때로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색하고 적응하는 시간도 꼭 필요한 과정이니 초조함을 버린다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2015. 8. 11. 국

김 달 진 